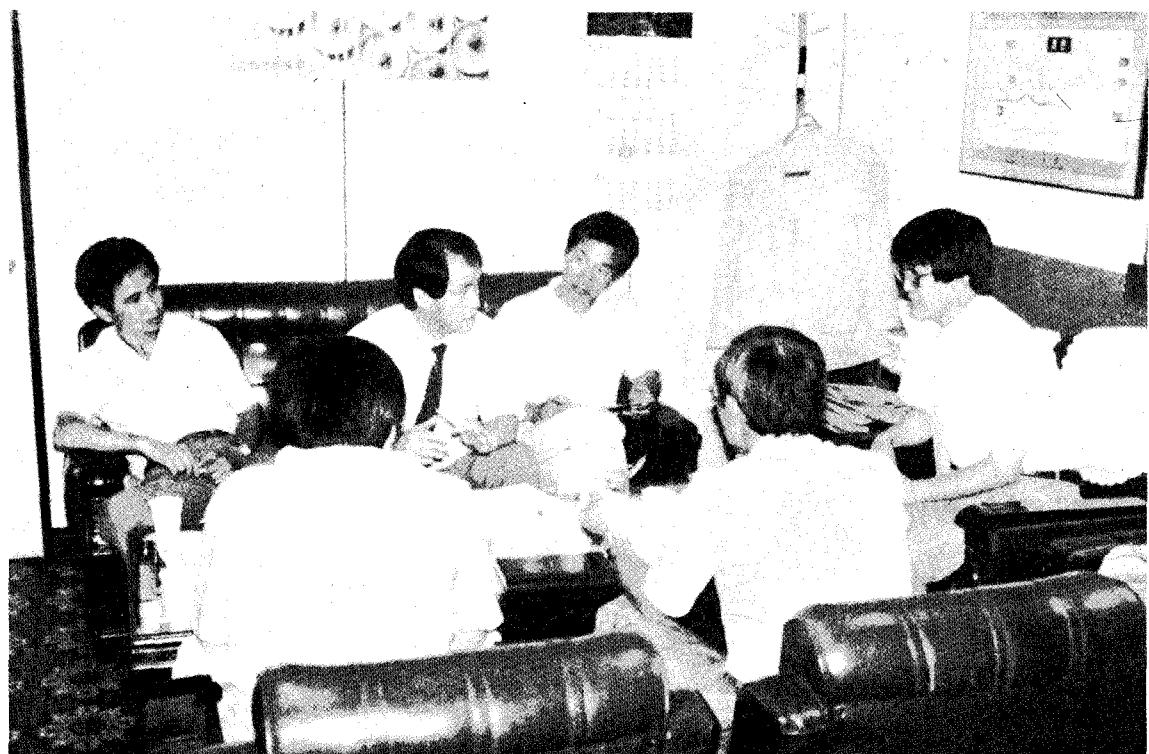


# 고가사료 시대의 양계산업 대응방안



일시/1988년 7월 26일 오후 2시

장소/대한양계협회 회의실

참석자/김동수(옥성써비스상사 대표)

김정인(신촌사료 전무이사, 본지편집위원)

박홍석(전북대학교 교수)

이동명(덕일농장 농장장·채란업)

장민기(버들농원 대표·육계업)

사회/남두희(본지 편집부장)

정리/권동원(본지 기자)

**사회** : 미국의 한발과 가뭄으로 고가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 보는데 사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함으로써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견되기 때문에 양계인들에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가뭄의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신 박홍

석 박사님께서 한발과 가뭄의 실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에 의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결하려 노력

**박홍석** : 이번 미국 시찰은 아이오와, 미네소타, 켄터키, 알칸사주 등 콘벨트(Corn belt) 지역의 농장을 비롯해서 일부 사료공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50년내에 처음 보는 가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부지방은 평균적으로 비가 잘오는 지역으로 관개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시피강 하류에 위치한 알칸사주는 쌀 생산을 주로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미시피강 물을 끌어올려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농민들은 30~40% 감수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는 약간 과장된 엄살에서 나온 수치이고, 콩의 경우는 13%정도 감수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미국 농민들도 혹독한 가뭄과 한 발에 인디안을 동원해 기우제를 지내자고 할 정도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태세로 가뭄에 대처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전에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 농업

연구소를 갔을 때 밀이나 보리를 심고 그 사이에 콩을 심는 간작(間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물을 대는 시설이 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심해 거의 말라죽어 실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험결과로 심한 가뭄에서는 실험도 못한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 3할정도 감수예상, 이미 고곡가 시대 시작

**김정인** :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도 태아나서 처음 겪는 가뭄이라고 말하더군요. 알칸사주에서 미국 대두협회 부회장 농장을 방문하였는데 온도가 높고 가뭄으로 땅이 말라 씨를 뿐었지만 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올해 농사를 포기할 것인지, 더 깊게 심어 다시 시도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농장도 너무 넓어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농민들 어렵기는 미국에서 트렉터를 타고 고생하나, 한국에서 곡괭이 들고 고생하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더군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들은 실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인 견해로는 옥수수는 3할 정도 감수를 예상하고, 대두는 과종기가 늦어 옥수수 보다는 피해가 적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준다 해도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곡물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앞으로는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어느 선을 유지할



박 홍 석



김 정 인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곡가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 사실 우리는 미국의 가뭄과 한밭을 외신이나 텔레스에만 의존했지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이상기후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들으니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김사장님께서 앞으로의 국제곡물을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 **옥수수 \$150대 예상**

**김동수** : 저는 현지를 보지 못해 두 분의 말씀과 지금까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분석해 보면 곡물수확 예상면적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위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생산량이 얼마만큼 감소될 것인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1 에이커당 정상적인 생산량은 110봉 셀정도로 보는데 미농무성은 87/88년도에 87봉셀정도 수확을 예상하고, 일부 민간업자는 70봉셀이하가 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무성은 20%, 민간업자는 30% 이상으로 감수를 예상하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30%는 감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기후에 의한 가격 변동을 끌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단위당 생산량이 얼마나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것입니다.

수요량과 재고량의 비율인 기밀재고율과 곡물가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곡물파동이 있었던 73/74년도에는 옥수수 재고율이 10

~15%였고, 83/84년도에는 2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88/89년도 기밀재고율을 1/4분기에는 40%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상기후로 기밀재고율을 30%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 가격은 \$156이었던 8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지에서 비가 내려주고 투매물량이 나와주어 \$ 140 ~150이 예상됩니다.

약간 희망적인 것은 작년에는 대미의존도가 거의 100%였습니다만 올해는 중공, 태국이 풍작이어서 이들 나라의 가격이 \$ 150이하로 될 것 같은 예상도 합니다.

**사회** : 그렇다면 사료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금년말, 내년 1월에는 현재보다 배합사료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 **내년초 사료가격 지금보다 20~25% 인상 예상**

**김정인** : 곡물시세 예측이 어렵듯이 배합사료가격 인상폭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옥수수, 대두박이 배합사료의 주원료이지만 반드시 옥수수, 대두박만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30~40%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변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2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행히 태국이나 중공에서 미국보다 싼 원료조달 가능성이 있고, 원화강세로 환율변동 폭 만큼 원가상승 요인을 상쇄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문제는 사료가격 인상방법인데 미국사료회사도 곡물가 상승으로

당황하고 있더군요. 그들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1주일에 한번꼴로 인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농민이 주인인 농민조합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올렸을 때 더 어렵다고 보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주 인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큰폭으로 가격이 오르기 보다는 3~4회에 걸쳐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사료가격이 한꺼번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양축가를 위한다는 취지보다는 경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료업계 경영상 일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리라 봅니다.

**장민기** : 79년 곡물파동때 사료가격은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양축가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았습니다. 오일쇼크와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봐집니다.

육계산업에서는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충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도 양계업자는 사료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도 규모를 줄이는 사람은 없고 줄이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격인상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폭으로 여러차례 올리면 충격효과는 미미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충격효과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도록 양축가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은다면 양계업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혁명한 대처방안은 단계적인 인상으로 양축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자기능력에 맞는 나름대로의 사육규모와 자기경영방침을 택함으로

써 축산물 가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또한 단계적으로 오름으로써 그 가격에서의 사료수요가 분명해져 이것이 곧바로 사료가격에 연결될 수 있어 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양계업의 경우 큰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료값 오르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사료회사에서 생산원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 **제도적인 제한은 없어야**

**김정인** : 사료회사에서의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사료회사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인상은 가능한 억제되고 품질이 유지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축가들의 요구로 최근에 곡물과 대두박 관세를 인하하였읍니다. 국채곡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았더라면 양축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영할만한 조치였지만 이번 관세인하 조치는 완벽하지 못하였읍니다. 대두박의 관세는 인하했지만 기타박류 관세는 높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박류이면서 제한품목인 대두박은 3%, 자유화 품목인 기타박류는 10%입니다.

사료회사는 현장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외국 시장에서 원료의 상품가치로 대두박이 100원, 채종박이 95원 한다면

채종박이 5원의 가치만큼 유리하지만 관세를 포함하면 대두박이 103원, 채종박은 104.5원으로 오히려 채종박의 도착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채종박이 있는데도 대두박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이며 원가절감에도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0%정도입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사소한 제한적 요소는 없어야 합니다.

**사회** : 아밖에 사료검사제도, 원료수입, 원료사료의 제한이나 각종 제도, 영업방법 등에서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소지는 많다고 보아지며 양축가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낭비는 없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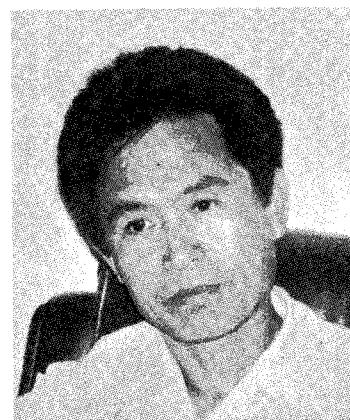
### **사료가 좋고 나쁨은 가축이 평가해**

**박홍석** : 사료검사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농민을 위하여는 의도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제조에 제한요소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오차 허용범위가 너무 좁아 성분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료를 만들어 높힌 수치만큼 자원낭비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로 요즘에 와서는 사료회사 뿐만 아니라 양축가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잘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제한규칙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양측에 다 불만을 줍니다.

미국은 영양성분은 사료회사끼리 경쟁적으로 유지하여 검사하지 않고, 단지 정부는 위생보전적인 차원에서 항생제,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김동수



이동명

라의 사료산업도 자유경쟁체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료검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양축가가 사료를 이용하면서 하며, 가축이 먹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서는 살아 남지 못하므로 자율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 사료유통에 들어가는 낭비 제거해야

**이동명** :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판매활동에 영업직원 인건비, 판촉활동비, 접대비, 자동차 등 너무 많은 돈을 판매활동에 쓰고 있고, 외상거래로 상호불이익을 당하며, 수급에 맞지 않은 사료 생산 등의 문제는 원료수급에서 개선할 점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업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양축가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면 사료를 바꾸고,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품질 변화가 와도 바꾸는 기회주의적인 풍토는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미국 양축가는 사료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도 효율적으로 양축가와 사료회사가 연대하여 쉽게 사료를 바꾸기 보다는 그 사료회사의 품질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신뢰가 필요하겠죠.

## 전지대두를 사료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되어야

**박홍석** : 우리나라는 단백질 원료로 대두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럽지역에서는 기름을 짜지 않은 전지 대두(콩)를 사료에 직접 배합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대두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원료 사용 범위 가지고는 에너지, 단백질을 둘다 만족하게 맞춰주는 품질좋은 사료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맥은 물론 전지대두도 사료에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축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서 원료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원가절감으로 사료비를 낮추고, 사료품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여 양축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 양축가 입장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선택방법도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결국은 사료를 먹여 양축가가 얼마나 경제적 수입을 올렸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생콩의 경우 소화 등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인** : 우리나라 축산업자는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는데 인색합니다. 산란계업자의 지적수준이 높아 열악한 환경조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료품질이 산란계업자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료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료회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산란계업자들이 너무 가격위주의 사료만을 고집해서 사료회사가 이익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축가도 돈을 벌지 못하고 서로 눈에 보이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료선택의 기준은 가격이 첫째가 아니라 사료를 써서 그 사료가 돈

을 얼마나 벌어주느냐에 선택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사료회사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육계업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계업자는 사육기간이 짧아 계산이 쉬워 사료효율과 목표제충도착 일정 등의 사료품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료회사는 육계사육농가의 성격에 보다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산란계업자가 육계업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회** : 사료공장 측면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양축가가 농장에서 경영개선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여지가 많다고 보아지는 데 특히 시설개선, 사양관리 방법, 갈색계와 백색계의 품종의 선별 개선, 제반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개선으로 계란 개당

### 2.7 원씩 절감

**이동명** :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니까 사료가격도 오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사료는 비쌀때나 찰때나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비쌀수록 절약효과는 더 커집니다.

사료절감에 대하여 저희 농장에서 직접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케이지를 2단에서 3단으로 올리면서 자동화 시설설비를 하였습니다. 사료 낭비가 적어서 오는 사료절감효과와 단위당 수용수수의 증가로 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겨울철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단 케이지에서 사람이 직접 사료

를 줄때는 하루 125 g 의 사료를 먹었으나 3단케이지로 바꾸어 굽이 방법을 기계화 한 후 115 g 밖에 먹지 않아 하루에 수당 10 g 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kg당 200원 하는 사료를 먹였을 때 하루에 한마리가 2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산란율 75%의 닭에서 계란 한개당 2.7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종문제에서 닭은 작은 체구로 적게 먹어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래식계 사일때 갈색산란계는 하루 125 g 을 먹고 백색산란계는 115 g 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 10 g 의 차이를 가져와 개란 1개당 2.7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난중은 60주령되는 백색계가 특란율 67%, 대란율 33%이고 갈색계는 특란 84%, 대란 16%로 오늘처럼 특란과 대란의 격차이를 9원으로 계산했을 때 계란 1개에 1원60전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육성비는 갈색계가 성성숙이 2주 가 늦어 초산직전 하루 100 g 의 사료를 먹는 것으로 계산하여 14일동안 1.4kg의 사료를 더 먹어 갈색이 280원의 육성비가 더 들어갑니다. 반면 노계도태시 갈색이 유리하여 수당 4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육성비와 노계처리시에 갈색계가 계란 1개당 0.4원의 이익이 있어 전체적으로 사료가격이 오를수록 백색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갈색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이유는 전에는 같은 특란이라도 갈색란이 1~2원을 백색에 비하여 더 받을 수 있었고 노계값의 차이가 많았고, 사료값이 싸서 갈색이 유리하였읍니다. 그러나 갈색이 많아지면서

갈색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계란이나 노계에서 더 받던 것을 못 받게 되어 백색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품종문제는 산란율, 생존율 등이 같다는 조건에서 산출한 근거이지만 실제로 백색은 마땅한 품종이 없습니다. 백색은 산란율이나 생존율에서 갈색보다 뒤지고 있다는 점이 저희 농장의 자료에 허구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축가가 개선해야 할 여지는 기계화로 환경을 개선하여 10 g , 품종개량에서 10 g 의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 사료가격이 비쌀 때도 고영양 사료가 더 경제적

**박홍석** : 저는 수익과 직결되는 특란율을 높이는 영양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란계에 있어서 리로레의 산( linoleic acid )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난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는 대두유(콩기름)나 전지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필수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전지대두를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란보다 특란이 훨씬 비싼 현실에 적응 해야겠습니다. 소화문제는 사료공장의 기술수준과 첨가제 등으로 과거같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절적인 문제는 겨울에는 사료 섭취량이 많아져 영양소 공급에 문제가 적으나 여름철에는 더위에 견디기 위하여 열이 적게 발생되도록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양균형을 맞추어 주면서



장민기



남두희

열발생요인을 적게하는 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료선택의 문제와 가격의 문제 등 제한요소가 많아 기술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비쌀때는 품질이 낮은 쌈사료를 써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료값이 싸거나 비쌀때를 막론하고 영향균형이 맞는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동물은 살아가기 위한 영양소 즉 유지사료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생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저급사료를 먹임으로써 목표일령이 연장된 날짜만큼 손실을 가져옵니다. 일부농가에서는 밀기울, 쌀겨 등이 있을 때 사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료와 섞어먹임으로써 목적기 간까지 도달이 더 길어져서 낭비를 초래합니다. 즉 고가사료시대에는 영양가가 더 좋은 사료를 급여해야

사료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료효율 높이기 위해 단열재 시공이 급선무

**장민기** : 고가사료시대에는 사료효율개선이 첫째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료낭비는 제거해야 하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단열재 시공입니다. 계사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오는 피해는 실로 엄청난 사료의 손실입니다. 또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벼려지는 것입니다. 고가사료시대의 대처방안으로 저는 반드시 단열재시공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 육계는 펠렛사료가 더 효율적

**김정인** : 육계사료는 100% 펠렛

화 하여야 합니다.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사료효율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는데 펠렛사료는 육계의 사료효율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12%정도 밖에 펠렛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80%이상 펠렛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싸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쌀때는 더욱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육계는 빨리 펠렛사료로 바꾸어 사료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 양계산물가격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노력 절실

**사회** :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축산물 생산원가는 출하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료값이 낮았는데도 양계업은 흑자를 보지 못하고 적자운영되었읍니다.

즉 사료값은 양축가의 소득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사료가격이 오르는 것에 현명한 대응으로 양계경영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료가격 인상폭이 줄 수 있도록 정부·사료회사등 업계에서 더욱 노력을 해야하겠고 양축가들도 생산비를 더 줄일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양축가들은 더욱 단합해서 양계산물가격이 적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양계



가루으로 고사되어 가는 밀과 콩